

영웅소설 연구사의 담론들 – 논쟁과 편견

서인석*

<차례>

1. 머리말
2. 영웅소설을 보는 시각과 편견
3. 영웅소설의 내포와 외연: 정체성과 범주의 담론들
4. 영웅소설 유형론: 하위 범주를 위한 담론들
5.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론: ‘영웅의 일생’을 둘러싼 담론들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 후기에 대량으로 산출되어 18,19세기 소설사의 중심을 이룬 영웅소설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사를 검토하고 작품의 실상보다는 ‘담론’ 차원에서 무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 속의 편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 영역은 영웅소설의 정체성과 범주, 하위 유형, 서사구조에 대한 논쟁적 담론들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주는 편견은, 무엇보다도 영웅소설은 유형성이 강하니까 ‘부분’만으로도 ‘전체’를 쉽게 알 수 있다거나, 작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가운데 대량으로 산출된 것이니까 몇 개의 하위 유형으로 쉽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영웅소설의 전체적인 수량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인기 순에 따른 일부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가문소설, 가정소설, 판소리계 소설 등 인접 유형(계통)과의 활발한 교섭 아래 형성되어 온 영웅소설의 외연을 포착하지 못하고, 중심에 있는 일부 작품을 대상으로 영웅소설의 성격을 논하고 하위 유형을 설정하고, 서사구조를 ‘영웅의 일생’ 구조에 대한 다양한 변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웅소설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범주와 대상을 재조정하고, 그런 바탕에서 개별 작품 혹은 소수의 하위 유형들을 통한 귀납적 연구에 좀더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사구조 역시 단 하나의 마스터 플롯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서사구조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영웅소설의 유형성에 너무 집착한 데서 오는 편견을 극복하고 영웅소설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일거에’ 하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주제어 영웅소설, 군담소설, 유형성, 범주, 하위 유형, 서사구조

1. 머리말

영웅소설은 18세기에 나와 19세기를 풍미하던 것으로, 판소리계소설, 한문단편, 가문소설과 함께 조선 후기 소설사의 주축을 이루어왔다. 이 중 판소리계 소설이나 한문단편은 그 ‘계통’상 분명히 구별되는 유형인데, ‘영웅’소설은 ‘애정’소설이나 ‘세태’소설, 그리고 나아가서는 ‘풍자’소설처럼 소설의 특징적 국면을 강조하여 붙인 것이기에 사실 그 용어부터가 연구자에 따라 다르고¹⁾ 영웅소설이 아닌 다른 작품들과의 경계도 모호하여 범주 설정도 전체를 아우르며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에 따라 연구 대상도 다르고, 이런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유형론’도 작품의 어느 특징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1)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일군의 소설들에 대한 명칭은 ‘영웅소설’ 혹은 ‘군담소설’로 아직 학계에서 통일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작품의 어느 요소에 더욱 주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붙여진 만큼 그 개념은 다르지만, 현재까지는 실제로 지칭하는 연구 대상으로서는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왔다. 물론 영웅소설 혹은 군담소설의 대상을 최대한 확장하면서 범주 설정을 해나가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처럼 ‘편의상’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서 논의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현재까지의 논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연구의 포괄성을 위해 이 둘을 아우르며 용어는 좀더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영웅소설’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영웅소설은 작자가 거의 알려지지 않고 관련 기록도 아주 드물어, 어느 유형보다도 실증적 토대가 허약해서 논의의 구체성 확보가 쉽지 않다. 작자 미상의 익명적 출생으로 말미암아 작가의 후광을 입지 못한 것은 이들 작품의 운명이라 쳐도, 관련 기록의 빈약은 이들이 얼마나 당대의 비평적 관심 밖에 있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하여 영웅소설 연구는 확실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뭔가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듯하여, 학설은 많은데 정설은 적은 영역이 되었다. 즉 영웅소설의 실체에 대한 진실이 모호한 가운데 논리적 정합성만 있으면 어떤 주장도 가능할 정도여서, 그야말로 다양한 ‘담론’의 장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영웅소설 연구사를 들여다보면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장에 들어선 듯한 느낌까지 받는다. 이처럼 연구가 축적되지 않고 담론들끼리의 논쟁이 무성하다 보니,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웅소설을 다룬 박사논문의 경우 방대한 분량의 거의 절반이 연구사 비판으로 되어 있을 정도이다.²⁾

이러한 논쟁의 장은 영웅소설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있는데, 그 정체성과 범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성립 시기 및 출현 동인, 작자층과 독자층(수용층, 향유층), 하위 유형, 서사구조, 통속성(대중성, 상업적 성격), 현실 인식, 후대적 변모 등 논쟁적 담론들이 풍성한 것이다.

이 글은 이들 중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영웅소설의 정체성과 범주, 하위 유형, 서사구조에 대한 논쟁적 담론들을 정리하면서 은연중에 그 속에 담기기 마련인 편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이런 ‘메타적’ 작업은 대안 없는 비판이 되기 쉬워서 연구자로서는 상당히 꺼리는 일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남의 연구의 ‘편견’까지 강조하면서 드러낸다는 것은 더욱 꺼

2) 김현양, 「조선조 후기의 군담소설 연구-개념, 유형, 성격 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 논문, 1994.

림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연구사 정리를 좀더 예각화시켜 앞으로의 영웅소설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약간의 만용을 부려 보기로 한다. 논의는 이른바 ‘역사 영웅소설’을 빼 ‘창작 영웅소설’에 집중하기로 하고, 연구 논저는 개별 작품론보다는 다수(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위주로 검토한다.

먼저 영웅소설에 대한 당대의 시각과 그 속에 담긴 편견을 간략히 살피고 본격적인 검토로 들어가기로 한다.

2. 영웅소설을 보는 시각과 편견

한국 소설 가운데 영웅소설만큼 부정적 시각 아래 비판 받아온 것도 없을 것이다. 이들은 한창 인기를 얻고 있던 당대에도 식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들은 영웅소설을 <구운몽>이나 <창선감의록> 등과는 달리 ‘교양/문화’적 산물과는 동떨어진 ‘풍속’ 차원의 저속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영웅소설이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방각본과 구활자본 소설 중에 영웅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 그 증거로 제시된 바도 있거니와³⁾, 범박하게 잡아 볼 때 고전소설의 여러 유형 중 이들만큼 많은 작품을 갖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소설을 읽는 것은 ‘풍속’ 차원에서 주로 거론되고 때로는 ‘풍속 교화’의 차원에서 비판을 받았다. 조수삼의 『秋齋集』 권 7의 「紀異」에 나오는 유명한 ‘傳奇叟’ 관련 기록에 <소대성전>, <설인귀전>이 들어 있거니와⁴⁾ 이 ‘전기수’라는 존재의 풍속적 차원도 그렇고, 이덕

3)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86쪽-287쪽 참조

4) 이우성, 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중), 일조각, 1978, 335쪽 참조

무의 <銀愛傳>과 『정조실록』에 인용된⁵⁾ 사례 (담배가게에서 일어난 영웅이 실의한 대목에 이르러 흥분한 나머지 패사 읽는 사람을 찢러 죽인 일)도 일종의 풍속 관련 기록으로 남은 것이다. 또한 이덕무의 『士小節』이나 채제공의 『女四書序』에 나오는 여성의 소설 읽기 비판은 사실상 ‘풍속 교화’의 측면에서 제시된 것인 바, 아마 이들 여성을 포함한 많은 남성의 영웅소설 읽기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홍희복의 <第一奇諺> 서문에 나오는 ‘숙향전 풍운전의 뉘 가항의 천한 물과 하류의 늑준 글시로 판본에 기간호야—’⁶⁾ 등의 표현이 보여주듯, 가항의 천한 말로 된 영웅소설은 그 품격부터가 의심스러워 진지한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소설’이라는 말이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왔고, 소설의 역사는 대체로 소설에 대한 거부 의 역사였음을 알고 있거니와, 우리 소설사의 경우 그러한 평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영웅소설이 아니었나 싶다. 이들 영웅소설은 ‘풍속’ 혹은 ‘풍속 교화’의 차원에서 언급되지 진지한 ‘문화’적 관심에서 언급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이들과 관련된 기록은 일종의 스펀들에 가까운 것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풍속 교화’의 차원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역으로 이들을 기록한 식자층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독서물과 수용층의 존재를 증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이들 영웅소설이야말로 좀더 통속적인 이야기 거리를 찾는 새로운 수용층 출현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새로운’ 소설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필사, 거리 낭독, 인쇄 등의 상업적인 유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즉 영웅소설은 그 자체로서 통속적이고 다소는 유치한 작품들을 요구했던 수용층의 산물이면서 역으로 이들을 문학

5) 이덕무의 <은애전>은 이가원 교주, 『이조한문소설선』, 교문사, 1984, 268쪽-279쪽에 번역되어 있고, 『정조실록』 기록은 정조 14년 8월 戊午條에 실려 있다.

6) 류탁일 편,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이문화사, 1994, 184쪽.

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대표적인 양식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위/밖에서만 보면 그것은 ‘풍속’ 차원의 일이었는지 몰라도, 그 안에서 이들을 즐기던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훌륭하고 재미있는 ‘문학’(요즘의 개념으로 번역하자면)이었던 것이다.

영웅소설에 대한 이런 시각과 편견은 1930년대 이후 연구 대상으로 객관화되면서도 상당 기간 이어져왔던 것 같다. 한국 소설사의 기초를 잡은 김태준부터가 『조선소설사』(1933 초간, 1939년 증보)에서 “군담으로는 쿠랑씨의 도서목록을 보더라도 5, 60종을 불하하는 듯하나——(중략)—— 이 군담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학적 취미와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겠다.”⁷⁾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웅소설은 그 수량 때문에라도 은연중에 고전소설의 특징을 대표하는 유형으로 자리잡아왔다. 예를 들어 한 때 고전소설의 특징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들 — “대부분 작자 미상이다. /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운문체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 권선징악적 내용이 많다. /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고 있다. /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인 전개가 많다. / 전형적, 평면적 인물이 등장한다. / 주인공의 일대기적인 형식으로 구성된다.” — 은 사실상 이들 유형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운문체’ 운운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론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그 질적으로는 낮게 평가받으면서도 양적으로는 한국 고전소설을 대표하는 듯한 시각은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도 조금씩은 존재할 것이다. 이들은 가문소설이 보여주는 방대한 분량의 호한한 작품 세계도 없고, 판소리계소설과 한문단편이 보여주는 현실 반영의 생동감도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방대한 수량 때문에라도 소설사의 줄기를 잡는 데는 결

7)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11쪽.

정적인 위치에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영웅소설이야말로 한국 고전소설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대단히 전략적인 유형이라 보는 적극적인 시각도 있고 보면⁸⁾ 영웅소설은 그 양적인 비중을 넘어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할 여지도 있는 흥미로운 유형이 아닐 수 없다.

3. 영웅소설의 내포와 외연: 정체성과 범주의 담론들

영웅소설은 적어도 그 양적 비중으로만 보면, 18세기를 지나 19세기에는 소설사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가문소설, 가정소설, 애정소설 등 다양한 유형들과의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좁게 잡아도 수량으로 보아 우리 고전소설 중 영웅소설만한 것은 없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을 보면 의외로 연구 대상으로 거론된 작품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게 된다. 이는 영웅소설의 범주를 단순화하여 연구의 편의는 얻기 위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알게 모르게 영웅소설은 단순하여 일부 작품만 갖고도 전체를 살피 수 있다는 편견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없다. ‘부분’만 갖고 ‘전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이러한 편의주의는 사실상 영웅소설의 범주와 그 정체성에 대한 장애로 작용해왔다.

영웅소설 연구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는 몇 사례를 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조동일의 「영웅소설 구조의 시대적 성격」(『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은 (<구운몽>과 <숙향전>을 포함한) 13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대석의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화여대출판부, 1985)

8) 조동일, 앞 책에 있는 「영웅소설 작품 구조의 시대적 성격」은 이런 점을 보여주는 논문이다. 영웅소설의 분명한 서사적 갈등 및 강한 유형성이 거대 담론에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많은 16편이다. 그리고 박일용의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서울대 석사 논문, 1983)는 10편, 임성래의 『영웅소설의 유형 연구』(태학사, 1990)는 18편, 김연호의 「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에 관한 연구-판각본을 중심으로-」(고려대 박사 논문, 1993)는 16편, 김현양의 「조선조 후기의 군담소설 연구」(연세대 박사 논문, 1994)는 13편, 안기수의 「영웅소설 연구-유형과 서사성을 중심으로-」(중앙대 박사 논문, 1995)는 12편이다. 어느 연구도 20편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영웅소설의 하위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여성영웅소설을 다루고 있는 한 연구의 경우 24편이나 되고⁹⁾, 다른 연구의 경우 그 이상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물론 영웅소설을 연구할 때는 연구 대상의 내포를 늘려 작품을 ‘선별’했고 여성영웅소설을 연구할 때는 외연을 넓혀 연구 대상을 ‘망라’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 연구 이전에 나온 개론서에는 이미 이보다 훨씬 많은 작품들을 영웅소설로 언급하고 있었다. 정주동의 경우 『고대소설론』에서 ‘군담소설’이라 하여 36편을 거론했고¹⁰⁾, 김기동의 경우 『한국고전소설연구』에서 ‘영웅소설’이라 하여 56편의 작품을 소개해놓았던 것이다.¹¹⁾ 물론 이들 중 정주동의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고전소설의 유형화 차원에서 범박하게 분류한 것이기에 다른 유형과의 ‘경계’가 중요했지 그 내부의 실상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김기동의 경우 “허구적인 영웅의 생애를 제재로 한 작품”이라는 상당히 포괄적인 기준을 내세웠고, 정주동의 경우

9)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 논문, 1986.

10) 정주동, 『고대소설론』(형설출판사, 1984년 수정5판) 이 책의 초판은 1966년에 나왔다. 정주동의 경우 김기동보다 작품수가 적은 것은 ‘소년 등과하여 출사하다가 국가 유사시에 일시 출진’하는 ‘入相出將型’은 제외하고 처음부터 전공으로 출세하는 ‘出將入相型’만을 純군담소설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342쪽-343쪽 참조.

11)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차례’ 참조.

“허구적인 전쟁을 다루되 군담이 주가 되는” 작품이라는 기준을 내세웠다. 최소한의 기준을 통한, ‘선별’보다는 ‘망라’에 무게가 실린 범주화였다고 할 수 있다.

영웅소설만을 다룬 본격 논문이나 연구서의 경우 이렇게 적은 작품을 선별한 것은, 물론 영웅소설의 범주화보다는 연구 대상의 제한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강엽이 김태준, 조윤제, 김기동, 정주동, 조동일, 서대석, 임성래, 민찬의 논저에서 다룬 영웅소설의 수를 다 합쳐 표를 만든 것을 보면, 모두 115편이나 되고 있다. 이 중 아직 영웅소설의 범주화에 대한 인식이 다소 모호했던 김태준, 조윤제의 것을 빼더라도 90여 편이나 된다. 그런데 연구 대상의 제한에 관심을 둔 조동일, 서대석, 임성래의 것을 합치면 27편밖에 안 된다. 물론 이들 연구자의 연구 대상도 서로가 상당히 다르다.¹²⁾ 그만큼 연구가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리라.

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선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이들 연구자들은 나름대로의 선별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선별’ 원칙이 그야말로 ‘자격 시험’이 아닌 ‘선발 시험’에 가까운 것이어서 영웅소설의 범주화는 사실상 외면되고 마는 것이다. 아울러 그렇게 선별된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게 되면, 선별 기준 속에 영웅소설의 정체성을 보는 나름의 시각이 들어가게 되고, 영웅소설의 포괄적 범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영웅소설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설에서 이들 유형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그 내부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다. 사실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조희웅이 고전소설의 줄거리를 정리해 놓은 연구서를 내놓아¹³⁾ 고전소설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알 수

12) 이강엽, 「군담소설 연구 방법론」, 연세대 박사 논문, 1993, 42-46쪽.

있도록 해놓았다. 이 속에 소개되어 있는 줄거리를 통해 영웅소설의 총량을 대강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영웅소설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넓혀야 하는 까닭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여 외연을 좁히면, ‘공시적인 분류 개념의 명징성’은 얻을지 몰라도 ‘역동적인 소설사적 변모 내용’, 즉 통시적/공시적인 영웅소설의 다양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영웅소설의 외연을 넓힐 필요는 영웅소설이 18, 19세기 소설사에서 어느 유형(계통)보다도 외연이 넓은 유형이기 때문이다. 그 많은 수량만큼이나 다른 유형과의 경계 지역도 넓은 유형인 것이다. 그렇다면 영웅소설은 그 범주 설정부터가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영웅소설 초기 작품에 대한 근래의 연구도 보여주고 있다. 영웅소설의 편년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근래 ‘초기 영웅소설’¹⁵⁾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한 듯한데, 그 과정에서 『상서기문(象胥記聞)』(1794)에 소개된 작품들 중 영웅소설로 볼 수 있는 것들, 즉 <장풍운전>, <최현전>, <장박(백)전>, <소대성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 네 작품조차도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13) 조희웅, 『고전소설 줄거리 집성』 1·2, 집문당, 2002.

14)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월인, 2003) 16쪽. 이강엽도 “넓은 의미의 개념 설정을 토대로 포용하여 논의의 폭과 성과를 늘리는 방향”이 온당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이강엽, 앞 논문, 51쪽)

15) 강상순, 「영웅소설의 형성과 변모 양상 연구」(고려대 석사 논문, 1991), 심재숙, 「<장박전>과 연의소설 『唐秦演義』의 관계를 통해 본 영웅소설 형성의 한 양상」(『어문논집』 32집, 고려대 어문학회, 1993), 이지영, 「<장풍운전>, <최현전>, <소대성전>을 통해 본 초기 영웅소설 전승의 행방」(『고소설연구』 10집, 2000.12), 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형성기를 중심으로-(박일용, 앞 책 수록), 전성운, 『조선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의 3장 「초기 영웅소설의 형성과 특징적 면모」.

<장풍운전>은 장편국문소설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최현전>은 장편국문소설과 영웅소설적 성격이 동시에 드러난다. 또한 <장백전>은 연의소설적 성격을 지녔고 <소대성전>은 설화적 성격을 지녔다. 혹시 이렇게 네 편의 작품 성격이 다른 것은 각각의 형성 경로가 다르기 때문은 아닌가.¹⁶⁾

이 성격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행한 혹은 인접한 다른 유형과의 교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영웅소설은 그 초기부터 구심성이 생각보다는 강한 유형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위에 거론된 작품들이 영웅소설 중에서도 비교적 중심부에 있는 작품이라면, 다른 유형과의 경계에 있는 작품들의 경우 그 원심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웅소설이라는 용어를 버리기 직전까지 가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창작 시기나 담당층면에서 너무 이질적인 작품까지 무리해서 포함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운몽>이나 <홍길동전>은, 영웅소설의 형성 과정이나 비교 연구에서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여러 면에서 영웅소설의 범주에 넣기가 꺼려진다. <구운몽>은 양소유 부분이 영웅소설과 비슷하지만, 성진 부분이 갖는 비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작자층이나 수용층 등 여러 면에서 영웅소설과는 다르다. 그리고 <홍길동전>은 작품이 나온 시기에 대한 이설도 있는 바, 허균의 작이 맞다면 역시 작가나 작품 세계의 측면에서 후대의 영웅소설들과는 다르다.

그리하여 다음 작업으로 내포에 따른 다양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통해 역으로 영웅소설의 외연이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영웅소설은 '영웅의 일생' 구조나 국가 단위의 '군담' 소재 못지 않게 가족 단위의 다른 요소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 있다. 이를 '가족

16) 전성운, 앞 책, 114쪽.

담론'이라 하면 이 속에는 어려서 고아가 되지 않은 이상 '가족이산담'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 있고 어머니가 일찍 죽었을 경우 '계모담'이 들어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천상계에서 예정되거나 부모 세대에 혼약을 맺은 남녀가 고난 속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 가족이 되는 '남녀결연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영웅의 일생 구조'가 부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다 해도, 그리고 '군담'의 비중 못지 않게 다른 요소가 많다 해도¹⁷⁾ 일단은 껴안아 일차적 검토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백학선전(白鶴扇傳)>과 같이 남녀결연담의 비중이 커서 애정소설의 범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작품까지 포함시켜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 작품은 연구자에 따라 애정소설로 보기도 하고 영웅소설로 보는 등 이견이 있지만¹⁸⁾ 영웅소설과 애정소설의 경계에 있어 영웅소설의 다른 유형과의 경계가 어디쯤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일단 검토 대상에 올릴 필요가 있다. <쌍주기연(雙珠奇緣)>이나 <옥주호연(玉珠好緣)> 등은 표제가 영웅소설보다는 가문소설에 더 가깝지만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영웅소설에 포함시켜야 할 작품이다.¹⁹⁾

이상과 같이 영웅소설의 외연을 넓게 잡고 그 범주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웅소설의 중심부 외에 변두리 영역에 있는 작품, 다른 유형과

17) 서대석은 '창작군담소설'이 "주인공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성장 과정의 시련과 그 극복, 그리고 가족들과의 분리와 재회, 천정한 배우자와의 결연 등 군담 이외의 중요한 흥미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부, 1985, 14쪽)

18) 김기동은 '애정소설'로 보았고(김기동, 앞 책, 204쪽), 민찬은 '여성영웅소설'로 보았고(민찬, 앞 논문), 임성래는 '애정성취형 영웅소설'로 보았다.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 연구』, 태학사, 1990) 이후 김연호 안기수 등 모두 영웅소설로 다루고 있다.(김연호, 『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에 관한 연구-판각본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 논문, 1993; 안기수, 『영웅소설 연구-유형과 서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 논문, 1995)

19) 이 두 작품은 이미 조운제(『한국문학사』(가로쓰기 신판), 탐구당, 1987, 291쪽)를 비롯하여 김기동, 임성래, 김연호 등에 의해 영웅소설로 분류된 바 있다.

경계선상에 있는 작품까지 다루면서 조선 후기 소설사에서 영웅소설의 비중을 좀더 다각도로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경계까지 나아가는 외연의 확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웅소설’과 ‘군담소설’은 좀더 분명하게 갈라질 것이다. 현재처럼 일부 작품만 갖고 연구를 하는 경우, 그 개념은 달라도 대상의 유사성 때문에 개념의 내포까지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경향도 있다. 즉 ‘군담소설’은 초기에는 ‘소개’적인 차원에서 사용되었다는 반성으로 ‘구조’ 개념을 내세운 영웅소설에 비해 넓은 개념으로 밀려나는 듯했으나, ‘영웅의 일생’이라는 구조 개념이 실제 주인공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약점 때문에, 군담소설이라는 용어를 쓰되 그 내용을 보충하여 사용하는 연구들도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담을 통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는 소설이라는 다분히 구조적인 의미까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거나, 군담과 직결되는 개념적 징표로서 “국가간의 갈등을 서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하는 것이다.²⁰⁾

그러나 이런 보완도 연구 대상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영웅소설이나 군담소설의 외연을 확장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어쩌면 우리는 이 두 용어보다는 포용력이 있는 제3의 용어를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4. 영웅소설 유형론: 하위 범주를 위한 담론들

다른 소설들보다 영웅소설은 유독 유형론이 중시되어왔다. 유형론이 성행한 것은 영웅소설의 작품수도 많지만 유형화가 가능할 정도로 ‘유형

20) 이강엽, 앞 논문, 50쪽 및 김현양, 앞 논문 102쪽.

적'인 작품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유형론이란 다수 영웅소설을 포괄하되 하위 범주화하는 것이어서, 영웅소설의 범주가 흔들리면 성공적인 유형화도 쉽지 않다. 즉 '구조 분석'이 '구조'라는 유기적 총체를 전제해놓고 하는 작업이듯이, 유형론 역시 어떤 범주를 전제해놓고 그 안에서 다양성을 추적하여 하위 범주화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전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유형론은 어려운 것이다.²¹⁾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범주화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영웅소설의 유형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니 다소 아이러니컬하다고 하겠다. 서로 비슷한 듯하면서도 조금씩은 다른 여러 유형화 작업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는 특히 영웅소설에 대한 단독 저서나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져왔는데, 이는 영웅소설 전체를 표방하는 연구일 경우 유형론을 피해갈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한 탓이다.

이 유형론의 불을 당긴 연구자는 조동일이다. 그는 영웅소설 연구에서 '유형' 혹은 '유형구조'라는 말을 널리 유포시킨 연구자인데, 영웅소설 전체를 소설사에서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영웅소설 유형'이라는 것을 설정했다.²²⁾ 그리고는 방각본 및 활자본 출간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영웅소설 12편을 선정한 뒤 이를 자아의 신화적 능력, 이원론적 주기론의 변모, 작자층의 변모 등을 기준으로 세 '단계'의 것으로 구분하여 작품들을 다음과 같이 소속시켰다.²³⁾

21) 이런 점은 이강엽도 유형론의 3가지 기준 중 '전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강엽, 앞 논문, 88쪽)

22) 그의 유형론은 작자와 창작여대가 밝혀지지 않아 시대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연대적인 기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즉 "(우리 소설사의) 작품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 상호간의 문학사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피한 과제"(조동일, 앞 책, 271쪽)였던 것이다.

23) 위 책, 444쪽.

모색기: <금방울전>, <양풍전>, <숙향전>, <소대성전>, <구운몽>
 확립기: <조웅전>, <유충렬전>, <현수문전>, <황운전>, <이대봉전>
 해체기: <장풍운전>, <장경전>

그의 ‘유형’ 개념이 ‘영웅소설이라는 유형’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실제 작업에서 보여준 위와 같은 결과는 (‘단계’라는 말을 써서 이들의 ‘시대적 변모’에 주목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으로 보건대 사실상 ‘하위 유형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조동일의 이러한 방법은 후대 연구자들에게 영웅소설의 하위 범주를 위한 담론들, 즉 ‘하위 유형론’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대 연구자들은 그냥 영웅소설이라는 유형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 내부의 ‘영웅소설의 유형론’을 그냥 ‘유형론’이라 하여 작업을 하여왔다. 따라서 이제 영웅소설 연구에서 유형론 하면 영웅소설의 내부의 하위 범주를 나누는 것으로 통용될 정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유형론’이라는 이름 아래 2-4개로 유형화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이어졌는데, 이 중 2개로 나누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효용성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3-4개로 나누는 것만 보기로 한다.

먼저 주목할 것은 박일용의 연구인데, 그는 “영웅소설 유형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지지만——대적 퇴치 민담의 소설적 변형에서 생성된 장풍운전 유형과, 그러한 유형이 상업적 소설 유형으로 변화된 유충렬전 유형이 합하여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인물 전설이 민중의식을 반영하여 소설화한 홍길동전 유형이 하나의 계열을 이룬다.”라고 하여 크게는 두 계열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²⁴⁾

24)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 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서울대 석사 논문, 1983) 111쪽.
 그는 나중에 여기서의 두 계열을 ‘민중적 역사영웅소설’과 ‘통속적 창작영웅소설’로 명명하였다. (박일용, 앞 책) 17쪽.

그리고 이들 유형의 선후 관계도 흥길동전 유형, 장풍운전 유형, 유충렬전 유형 순으로 나왔다고 하여 조동일처럼 시대적인 의미도 고려하였다.

반면 서대석은 ‘창작 군담소설’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적과 대결하는 <소대성전> 유형, 내적인 간신과 대결하는 <유충열전> 유형, 창업하는 새로운 인물을 도와 구왕권과 대결하는 <장백전> 유형으로 나누었다.²⁵⁾ 그리고 임성태는 “영웅의 일대기를 기본 구조로 하는 작품이면서 아울러 주인공의 행위의 성격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능력본위형, 인륜수호형, 애정성취형, 체제개혁형으로 나누었다. 한편 김연호는 ‘개인적인 고난’, ‘고난의 극복 수단으로서의 군담’, ‘개인적인 고난의 최종적인 극복’을 축으로 하여 고난, 군담, 상봉만으로 되는 <금방울전> 유형, 고난과 군담 사이에 결연담이 삽입되는 <소대성전> 유형, 결연담이 고난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백학선전> 유형의 셋으로 나누었다.²⁶⁾ 이들 중 서대석은 각 유형마다 ‘향유층 의식’(시대의식이나 사회의식)을 해석해냄으로써 ‘창작 군담소설’이 역사적 장르임을 강조하고 있고, 임성태와 김연호는 각 유형 안의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그 선후 관계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성에 대한 관심은 유형론이 추상화되면서 약화되는데, 김현양의 연구는 중세적 지배 질서의 위기에 서사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구국형’, 가족 관계의 회복과 유지에 서사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성가형’, 이 둘이 거의 대등하게 서사화되고 있는 ‘혼합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안기수는 “주인공이 겪는 작품 내적 고난의 양상과 극복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가정지향적 유형, 도덕지향적 유형, 애정지향적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영웅소설의 역사성이나 각 유형 혹은 작품들의 역사적 선후 관계와 무관한 그야말로 공시적 유형 분류에

25) 서대석, 앞 책, 68쪽.

26) 김연호, 앞 논문, 241쪽.

치중한 것이었다.

이상의 경우를 보면, 유형론은 뒤로 갈수록 역사적 선후 관계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면서, 연구 대상을 더욱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형 설정에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형 명칭도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박일용, 서대석의 경우 유형 명칭에 작품 이름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모든 영웅소설을 포괄하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반면 임성래, 김현양, 안기수의 경우, 작품 이름이 아닌 별도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다수의 작품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들 유형론은 모두 자기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내부에서만 보면 그 자체적으로는 논리적 문제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연구 대상 범위에서는 각 유형이 의미가 있어 보여도 연구 대상을 넘어서서 유형을 적용하려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위 유형이 실제적으로는 소수의 제한된 작품만을 갖는 폐쇄 유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대석의 ‘장백전 유형’에는 <장백전>, <유문성전>이, 임성래의 ‘체제개혁형’에는 <장백전>, <유문성전>, <옥주호연>, <홍길동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 유형은 영웅소설을 다 뒤져 보아도 더 이상 예를 들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 점은 박일용의 <홍길동전> 유형(<홍길동전>, <전우치전>)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는 클지라도 영웅소설의 독립 유형으로까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박일용의 경우 이들 소수를 별도의 ‘계열’로 독립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비교적 최근에 기왕의 유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새롭게 시도한 김현양의 경우는 ‘혼합형’이 문제이다. 본인도 인정했듯이 ‘군담소설의 모든 작품에는 위의 두 가지 서사적 관심의 국면이 공존’하고 있다면, 이제

들 중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 이 유형화 작업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혼합형’이란 사실 독립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두 요소가 ‘대등’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충열전>, <곽해룡전>을 들었지만, 본인도 이들 유형은 “현저히 적고” “매우 제한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것을 독립 유형으로 잡는 것은 다른 유형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김연호의 경우, 영웅소설의 주요 내용을 몇 개의 ‘필수적인 삽화’를 요소화하여 이들의 결합에 따 유형화한 것이므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고 이 ‘삽화’들을 가다듬으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도 같다. 그러나 김현양이 지적했듯이 그가 ‘필수적인 삽화’라고 한 것들이 정말로 영웅소설들에 필수적인 것인지도 문제이고²⁷⁾, ‘필수적인 삽화’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이들의 결합 형태가 꼭 3개로 제한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점도 문제이다.

유형론에서 하위 유형은 원칙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들 외에 그들을 대표로 하는 일군의 작품들이 어느 정도는 배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많은 영웅소설 중 극히 제한된 작품만을 가진 하위 유형을 설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 감각에도 안 맞거니와, 그 유형만 잠시 밀쳐 놓으면 나머지 유형화 작업도 의미가 약화되어버리기 쉽다. 예를 들어 김현양은 서대석이 설정한 ‘장백전 유형’과 임성태가 설정한 ‘체제개혁형’을 부정하는데, 이들 작품의 주인공이 겉으로는 ‘구왕권과 대결’하거나 ‘체제개혁적’으로 보일지라도 결국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중국을 침략한 외적을 패퇴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화이관적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²⁸⁾

27) 김현양, 앞 논문, 127쪽.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이강엽처럼 형식/구조적인 면에 치중하여 ‘기본형’, ‘연쇄형’, ‘삽입형’, ‘교체형’으로 나누기도 한다.²⁸⁾ 이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것이 ‘영웅소설 유형’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형식화의 정도가 높은 만큼 거의 모든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에 영웅소설의 유형적 특징을 넘어버리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유형론은 아무리 고심을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웅소설이 몇 가지의 한정된 수로 하위 유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연구자들에게는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영웅소설은 그 내부적 유형성이 강한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그런 것을 더욱 부채질하기에,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의 유형론을 비판하며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는다. 그러나 그 연구 또한 뒤 연구자의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담론만 풍성하고 연구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도 별로 안 드는 것이 문제이다. 영웅소설이 수량에 걸맞게 내부적으로 편차가 큰, 그야말로 18, 19세기 소설사를 관통하면서 외부의 다른 유형과 서로 교섭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이 산출되었다는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기 전에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영토가 넓은 만큼 국경선도 긴 영웅소설의 영역을 몇 가지로 구획하려는 야심찬 행로, 그것은 연구자들의 의욕의 산물이기도 하면서 좌절의 기록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유형론이 갖는 가치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일단은 부분을 통해서라도 유형화에 대한 노력은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 전체를 향해 나아가는 열린 유형론이 가능하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 해도 바람직한 유형화를 위한 별도의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28) 위 논문, 125쪽.

29) 이강엽, 앞 논문.

이 경우 무엇보다도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출간 횟수와 같은 잣대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어느 잣대보다는 그래도 유용한 것이겠지만 유형화 작업이 인기 있는 유형을 별도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계에서 '표본 추출'이 중요하듯, 연구 대상 선정부터 신중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대로 영웅소설의 존재 양상을 앞에서 언급한 『고전소설 줄거리 집성』 등을 통해 거시적으로 살펴 본 뒤, 적절한 표본 추출에 대해 좀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모든 영웅소설을 망라하는 유형론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역사적 형성 과정까지 담는 계통적 유형론이면 더욱 바람직할 테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작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소대성전>, <장풍운전>, <장경전>과 같은 작품이 <유충렬전> 등과는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묶인다는 것은 이런 방면에서 그 동안의 연구가 이룩한 소중한 성과라 하겠는데, 이들을 풀어 헤치면서 논리적 명징성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문학 장르들이 '논리적인 의미에서의 種이 아니라 역사적 친족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도 있거니와³⁰⁾, 영웅소설 역시 연구자를 위해 논리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다른 친족 집단처럼 모여 있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유형화 작업은 일부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역적인 방법보다는 개별 작품론의 축적과 함께 나아가며 귀납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길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웅소설과 인접해 있는, 그리하여 어느 정도는 서로 섞여 들어가는 작품들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는 유형론이 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것은 문학 연구 방법에서 항상 부딪치는 '역사적인 것'과 '논리적(체계적)인 것'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

30) 한스 R. 아우스 지음, 최애리 옮김, 『중세 문학과 장르 이론』 (김현 편, 『장르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7) 131쪽.

히스나의 문제이기도 한 바, 한 걸음씩 천천히 이루어 나아가야 할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5.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론: ‘영웅의 일생’을 둘러싼 담론들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모형은 ‘영웅의 일생’이라는 것이다. 이 ‘영웅의 일생’은 엄밀히 말하면 ‘서사구조’가 아니라 여러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 패턴’이다.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정착시킨 조동일도 처음에는 ‘전승적 유형’이라 했다. 따라서 이 개념은 개별 작품의 구조 분석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영웅소설 내부의 유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들 영웅소설을 한국서사문학사의 거시적 계보 속에 위치시키는 데 유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모형은 오늘날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가장 강력한 개념이 되었다. 즉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론은 이 ‘영웅의 일생’을 둘러싼 담론들로 채워진 것이다.

‘영웅의 일대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김열규, 조동일 두 분에 의해 거의 동시에 제출되었다. 김열규는 「민담과 이조소설의 전기적 유형」³¹⁾에서 외국 이론가의 연구를 조합하여 추출한 ‘H-R-L-C 유형’에 입각하여 <최고운전>, <홍길동전>에서 ‘傳記的 類型’을 추출하였다. 이 전기적 유형은 <동명왕 전승>부터 민담에 이르는 긴 역사를 가진 것이었고, 그 결과 이조소설은 중국의 영향 못지 않게 “우리 文學의 傳統 속의 毅然한 우리 것의 脈流”과도 연관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서구 방법론의 적용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서사구조라기보다는 공통 모티프의 나열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31)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에 수록.

반면 조동일은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³²⁾(『동아문화』 10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에서 한국의 서사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영웅의 일생’이라는 전승적 유형을 추출하였다.

- (가)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다.
- (나)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했다.
- (다)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 났다.
- (라)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 (마) 구출, 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 (바)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 (사)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

그는 이 (가)-(사)가 단순한 모티프의 나열이 아닌 의미 있는 순서라는 것을 이들 단락들이 ‘행복’과 ‘고난’의 교체되면서 뒤의 것이 앞의 것을 부정해나가는 것임을 통해 강조하였다. 즉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행복과 고난의 변증법적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 전승적 유형 속의 영웅상이 갖는 외국 영웅과의 차이점과 우리 문학사에서의 시대적 변이 양상까지 짚어내고 있다. 이 경우 ‘영웅의 일생’이란 작품의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한국의 서사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전승적 유형’이었다.

그런데 이 개념은 후속 작업인 「영웅소설 작품 구조의 시대적 성격」에서 영웅소설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이후 영웅소설의 서사구조 분석의 도구로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서사구조의 단락상의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 이 모형은 7개 단락 중 3개가 ‘출생’과 관련된 것인 반면, 출생 이후 주인공의 삶은 4개

32) 조동일, 『민중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에 개고 재수록.

의 서사단락으로 되어 있다. ‘어려서’의 삶에 2개, ‘자라서’의 삶에 2개씩. (‘2개’는 고난과 극복의 관계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이다.) 이렇게 출생 부분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진 것은 물론 이 부분에 유형성이 크고 (서두와 결말의 강한 유형성!), 그 이후 부분은 변이가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를 늘이지 못하고(더 이상 구체화를 못하고) 그 부담을 개별 작품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뒤로 갈수록, 즉 영웅으로서의 활약이 본격화되는 부분일수록 추상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기아/구출’보다 ‘위기/극복’이라는 용어는 더욱 추상적이어서 여기에 안 맞는 서사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³³⁾

이러한 불균형은 물론 이 ‘영웅의 일생’ 개념이 많은 서사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 플롯’으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프롭이 러시아 민담을 대상으로 31개의 기능을 갖춘 ‘마스터 플롯’을 추출했듯이³⁴⁾, 그 역시 7개의 서사단락으로 된 마스터 플롯을 추출해낸 것이다. 프롭과는 달리 그는 추상성을 높여 숫자를 줄였을 뿐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서사단락은 거의 모든 영웅이야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어느 한 두 단락 정도 의미가 약화되어서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없을 수도 있으나, 일곱 단락 외에 다른 단락을 더 지니고 있는 인물은 없다”³⁵⁾라고 단언했던 것이다.

33) 아울러 ‘자라서’ 부분에서 사실상 서사가 종결되는 것, 즉 영웅의 일생이 사실상 청년기에서 끝나고 마는 것도 ‘영웅의 일생’이라는 용어와의 거리감을 느끼게 해준다. 영웅적 활약을 한 다음, 그 이후의 길고 긴 삶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다고 청년기에 삶의 절정에서 죽을 수는 없는 것. 이 딜레마를 영웅소설만큼 절실하게 의식하는 유형도 없을 것이다. 죽기에는 너무 젊고 더 이상 다른 영웅적 행위도 불가능한 삶! 더 이상의 서사가 불가능한 지점에 오면 급격한 ‘설명’으로 된 ‘유형적 결말’로 치달게 되는데, 그 결과 삶의 후반부는 사실상 공백이나 마찬가지로 되고 ‘일생’의 의미는 약화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에 각주로 가볍게 언급해 둔다.

34) 윌리스 마틴, 김문현 옮김, 『소설 이론의 역사』, 현대소설사, 1991, 133쪽.

그런데 이 서사구조가 ‘마스타 플롯’인 이상 당연히 개별 작품들의 변별적 자질보다는 유사성 혹은 공통점이 강조된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작품에 적용할 때는 항상 ‘구체화’ 내지는 ‘개별화’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이는 조동일 자신부터 개별 작품을 분석할 때 적용한 바 있다. <조용전>을 분석할 때 (라)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던 것이다.

- (라) 1. 아버지는 간신 이두병을 규탄하다가 죽고, 이두병의 화를 입어 조옹도 죽게 되었다.
- 2. 화를 피해 도망치다가 어머니와 헤어졌다.
- 3. 장소지와 헤어졌다.

다른 연구자의 이 모형에 대한 비판 내지 변형은 이 대목에서 일어난다. 즉 7개로 된 서사단락의 모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거의 모든 작품에 한 단계 더 낮은 층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아예 좀더 구체화된(세분화)된 서사단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위와 같이 구체화 과정을 통해서도 포착되지 못하는 다른 서사적 단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대석은 영웅소설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14개의 순차적 서사단락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후반부에 ‘주인공의 복수’, ‘가족과의 재회’, ‘주인공의 죽음’이 들어갔다는 것이다.³⁶⁾ 이는 조동일의 모형에서 영웅의 활동 부분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다르게 여성영웅소설을 연구하면서 여성영웅소설에만 적합한 서사단락을 설정하면서 변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용문은 위 서사모형의 표현을 여성에 맞게 고치고 “(라)

35) 조동일, 앞 책, 16쪽.

36) 서대석, 앞 책, 27쪽-32쪽.

남장가출로 고난을 극복한다. (마)수확에 의해 남성적 능력을 갖춘다.” 등을 추가하였다.³⁷⁾

이처럼 ‘영웅의 일생’을 변형 내지는 구체화하는 것은 그 기본 서사 모형을 그대로 두고 개별 작품을 통해서 ‘구체화’하려는 조동일의 방법과는 달리, 기본 틀을 아예 그 아래 단계인 영웅소설이나 아니면 그 하위 유형까지 내려가 변형 내지 구체화한 뒤 그것을 개별 작품에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조동일의 서사 모형을 비판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그의 서사 모형을 변형 내지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동일의 경우처럼 최소한의 단락이 아닌 경우, 이 구체화는 어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가하는 또 다른 질문에 부닥치게 될 수 있다. 즉 서사단락의 숫자가 연구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동일의 서사 모형은 하위 단락에 유동성을 넘겨주면서 상위 단락을 단순화시킨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다소 특이하게 ‘영웅의 일생’이 서사구조 분석의 도구가 아닌 본래적인 의미에서 유형화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임성래의 시도가 그러하다. 그는 서사구조의 기본 틀이 아닌 유형화 작업의 일환으로 탄생, 정혼, 고난, 피화, 구출, 수확, 입궁, 재회, 혼인, 부귀영화, 죽음 등의 단락(화소)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단락의 결합 및 그 순서를 중시하여 4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눈 바 있다. 이 경우 이들 단락(화소)의 순서가 유형마다 다르므로 이들을 망라하되 순서까지 들어맞는 ‘하나의’ 영웅소설의 ‘마스타 플롯’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즉 서사구조에 대한 관심보다 ‘단락 전개 과정’에 따른 유형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서 노선을 완전히 달리 한 셈이다.

이상에서 보듯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론에 미친 조동일의 영향은 너무도 커서, 영웅소설의 서사구조에 대한 후속 연구가 대부분 그의 ‘영웅의 일생’

37) 전용문, 『한국여성영웅소설의 연구』, 목원대 출판부, 1996, 30쪽.

의 변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 소설사에서 특정 소설 유형의 서사구조론이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일은 드문 일이다.

그런데 이강엽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온전한 서사구조라기보다는 작품 주인공의 일대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공통 즐거리만 배열해놓은 것”이므로 개별 작품의 정밀한 서사구조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³⁸⁾ 유형적인 서사적 골격을 추출하고 그 내부적으로 하위 유형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외부적으로 다른 유형과의 관계를 살피는 데 유용한 개념이라는 것이 ‘빛’이라면, 이것이 개별 작품의 고유한 서사 분석에까지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개별 작품의 서사가 강한 유형성에 견인되어 분석될 가능성이 커지고, 나아가 개별 작품 분석에 유용한 다양한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틀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정체성과 범주, 하위 유형에 대한 담론들에서 드러나는 편견에 비하면, 이는 편견이라고까지는 말하기 곤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웅소설 작품의 내부로 들어갈 때 서사구조의 유형성을 전제로 하고 들어간다면, 이 역시 편견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6. 맺음말

이상 영웅소설의 몇 가지 논쟁적인 장의 담론들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주장들(그리고 그 속에 은밀히 숨겨 있는 편견들)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았다. 이러한 편견들은 연구자 못지 않게 연구 대상인 영웅소설이 유발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영웅소설은 유형성이 강하니까 ‘부분’만으로도 ‘전체’를 쉽게

38) 이강엽, 앞 논문, 240쪽.

알 수 있다거나, 작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가운데 대량으로 산출된 것이니까 몇 개의 하위 유형으로 쉽게 나눌 수 있다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영웅의 일생’이라는 영향력 있는 서사구조 분석의 틀에는 개별 작품의 내부보다는 외부로부터 보는 시각이 더 컸던 면도 있다.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영웅소설에 대한 연구는 풍성하게 이루어져왔고, 그것들이 영웅소설에 대한 이해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비평적 관심이 대상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영웅소설은 이런 연구들을 통해 소설사적 비중이 확대되고 또 그런 만큼 뜨거운 논쟁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웅소설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범주와 대상을 재조정하고, 그런 바탕에서 개별 작품 혹은 소수의 하위 유형들을 통한 귀납적 연구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웅소설이 순도 높은 유형이라는 것은 어쩌면 환상인지도 모른다. 영웅소설이 가지고 있는 잡종적 성격에도 주의하면서, ‘종합적으로’ ‘일거에’ 하려는 연구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연구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본다.

양적 비중으로만 본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17세기 이전 소설사의 중심에 ‘전기소설’이 있다면, 17세기라는 과도기를 거쳐, 18, 19세기 소설사의 중심에는 영웅소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는 그 수량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영웅소설은 가문소설과 가정소설, 판소리계소설 등 인접 유형(계통) 소설들과의 활발한 교섭을 하면서 사실상 소설사의 중심에 있는 유형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웅소설 연구는 한국 소설사의 올바른 구도를 위해서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본 논문은 영웅소설과 군담소설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의 미묘

한 차이를 정면에서 다루지 못하여 연구 대상의 미묘한 차이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안고 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제목처럼 연구 당사자들 사이의 논쟁을 통해 쟁점과 편견을 부각시키는 글이 되지 못하고, 담론들 사이의 논쟁사와 연구사 검토 사이의 다소 어정쩡한 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치밀한 연구사 검토가 아니다 보니, 거칠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언급이 안 되거나 충분한 인용도 없이 소략하게 논의된 감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실은 여러 연구자들의 논쟁적 담론 안에 있는 것도, 필자의 비판 속에 있는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기에, '편견'이라는 용어 앞에서 필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 글은 좀더 큰 한계를 안고 있다. 별도의 논문을 통해 이런 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904쪽.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321쪽.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80쪽.
류탁일 편,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602쪽.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418쪽.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부, 1985, 391쪽.
이기원 교주, 『이조한문소설선』, 교문사, 1984, 514쪽.
이우성, 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중), 일조각, 1978, 466쪽.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 연구』, 태학사, 1990, 170쪽.
전성운, 『조선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389쪽.
전용문, 『한국여성영소설의 연구』, 목원대 출판부, 1996, 295쪽.
정주동, 『고대소설론』(수정 5판), 형설출판사, 1984, 376쪽.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473쪽.
- 조동일, 『민중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330쪽.
- 조윤제, 『한국문학사』(가로쓰기 신판), 탐구당, 1987, 568쪽.
- 조희용, 『고전소설 줄거리 집성』 1·2, 집문당, 2002, 1785쪽.
- 윌리스 마틴, 김문현 옮김, 『소설 이론의 역사』, 현대소설사, 1991, 326쪽.
- 강상순, 「영웅소설의 형성과 변모 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 논문, 1991, 1-153쪽.
- 김경숙, 「군담소설 연구—유형성과 수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 논문, 1991, 1-175쪽.
- 김연호, 「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에 관한 연구—판각본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 논문, 1993, 1-256쪽.
- 김현양, 「조선조 후기의 군담소설 연구—개념, 유형, 성격 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 논문, 1994, 1-248쪽.
-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 논문, 1986, 1-143쪽.
-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 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 석사 논문, 1983, 1-146쪽.
- 심재숙, 「〈장백전〉과 연의소설 『唐秦演義』의 관계를 통해 본 영웅소설 형성의 한 양상」, 『어문논집』 32집, 고려대 어문학회, 1993, 261-284쪽.
- 안기수, 「영웅소설 연구—유형과 서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 논문, 1995, 1-260쪽.
- 이강엽, 「군담소설 연구 방법론」, 연세대 박사 논문, 1993, 1-257쪽.
- 이지영, 「〈장풍운전〉, 〈최현전〉, 〈소대성전〉을 통해 본 초기 영웅소설 진승의 행방」, 『고소설연구』 10집, 2000, 5-42쪽.
- 한스 R 아우스 지음, 최애리 옮김, 「중세 문학과 장르 이론」, 김현 편, 『장르의 이론』, 문학과학지성사, 1987, 126-159쪽.

ABSTRACT

Discourses in the studies of the heroic novel: controversy and prejudice

Seo, In-S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existing studies about heroic novel which had been constituted the center of 18 and 19 centuries novel. And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prejudice of the studies of the heroic novel which is focused on the discourse about the works rather than the work itself. Especially the object which I tried to handle is the argumental discourses about the identity, category, sub-type, and narrative structure of the heroic novel.

The prejudice of the existing studies, I think, is above all the idea that the character of heroic novel is typical, so they can see easily 'the whole' from 'the part', or it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ub-types because it was produced in a large quantities. Without concrete investigation about the whole volume of the heroic novel works, the studies have been observed only some famous works, so they missed the extension of the heroic novel which conversed with neighboring novel like family novel, domestic novel, or pansori novel. They interpreted narrative pattern as one of the diverse variants of biographical pattern of the heroic novel, and discuss only some works of the major heroic novels.

But now, I think, we must readjust the category and objects in a broad prospective and have more interests on the inductive study about the individual works or a minor of sub-types. And we need to establish more diverse narrative structure models rather than only one master plot. I think it is the time that we need the studies which advance step by step rather than doing 'comprehensively' or 'all at once', being free from the prejudice produced by the attachment to the typical heroic novel.

Key Words heroic novel, military novel, category, sub-type, narrative structure

논문투고일 : 2006. 11. 10
심사완료일 : 2006. 11. 22
게재확정일 : 2006. 12. 1